

# 더 강해진 KIA, 부상 이탈에도 끄떡없다

‘불펜 마당쇠’ 임기영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엔트리 말소

5명 구성 ‘필승조’ 로테이션 이상무...외야도 ‘기회의 시간’



‘호랑이 군단’이 부상에도 흔들림 없이 직진한다.

KIA 타이거즈에 또 부상 소식이 전해졌다. KIA는 지난 1일 임기영을 엔트리에서 말소하면서 “3월

31일 경기전 불펜 투구를 하면서 왼쪽 옆구리에 불편함을 느꼈다. MRI 검진 결과 좌측 내복사근 미세 손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벌써 세 번째 부상 이탈이다.

먼저 3월 17일 두 명의 부상 선수가 나왔다.

이날 이우성이 안타로 출루한 뒤 2루 베이스를 밟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교체됐고, 나성범도 주루 도중 우측 햄스트링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벤치로 물러났다.

검진 결과 두 사람의 표정이 엇갈렸다.

이우성은 단순 염좌로 며칠 휴식을 취한 뒤 정상적으로 개막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수의 핵심이자 ‘주장’ 나성범은 다시 한번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막전에서 자취를 감췄다.

나성범의 공백에도 KIA를 웃게 했던 황대인의 뜨거운 방망이가 부상에 멈췄다.

퓨처스리그 스프링캠프에서 이를 갈았던 황대인은 시범경기에서 3연속 홈런을 날리는 등 ‘무력 시위’를 하면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고, 개막전에서 1루수로 선발 출장하며 새 시즌을 열었다.

하지만 3월 27일 롯데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한 황대인은 베이스를 밟은 뒤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검진 결과 햄스트링이 손상이 확인되면서 황대인도 재활군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임기영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임기영은 지난 시즌 불펜에서 무려 82이닝을 소화한 ‘마당쇠’였다. 선발로서도 경험을 갖추고, 다양한 쓰임새를 가진 전전후 투수인 만큼 부상 이탈은 아쉽다.

KIA에 부상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탄탄해진 전력에 부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은 반갑다.

나성범과 황대인의 부상 상황에서는 이우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올 시즌 1루수 변신을 준비했던 이우성은 원래 자리인 외야와 1루를 오가면서 깔끔한 수비와 함께 좋은 타격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치열해진 외야 경쟁이 벌어지면서 기회를 노리던 외야수들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다.

마운드의 경쟁도 치열한 만큼 KIA는 ‘경쟁’으로 임기영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형범이 먼저 기회를 얻었다.

지난 시즌이 끝난 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두산에서 KIA로 이적한 이형범은 부상으로 생긴 빈틈에서 어필 무대를 펼치게 됐다. 이형범에게는 고향 팀에서의 새출발이다. 이형범은 화순초·중·고 출신으로 N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2019시즌에는 두산 유니폼을 입고 한국시리즈 우승 순간을 함께 했다.

무엇보다 잘 갖춰진 필승조가 KIA의 자신감이다.

이범호 감독은 올 시즌 임기영-장현식-최지민-전상현-정해영으로 필승조를 꾸렸다. 최대한 3연투를 피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하기 위해 5명을 중심으로 필승조를 구성했다. 여기에 2년 차 좌완 광도규가 성장세를 보이면서 필승조와 다름없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KIA는 지난 시즌에도 있던 부상으로 신음했



▲KIA 임기영이 옆구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좌완 광도규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KIA 타이거즈 제공)

다. 그만큼 부상을 키워드로 해서 시즌을 준비했지만 ‘부상 압초’는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팀’을 강조하는 새로운 분위기와 뜨거운 자리싸움으로 부상 영향력은 줄었다.

KIA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

## KIA, 올해도 원정경기 응원단 파견

전국에서 KIA 타이거즈의 응원가가 울려 퍼진다.

KIA가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홈 경기는 물론 모든 원정 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한다.

KIA는 경기가 열리는 모든 경기장에 서한국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4명을 파견해 선수단을 응원하고, 신나는 안무와 울음으로 팬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서한국 KIA 응원단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열리는 원정 경기에도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응원을 보내주시는데 응원단도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 힘찬 응원으로 선수들에게 좋은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멋진 응원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LEE 바람’ 멈추지 않아

1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5회초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안타를 치고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MLB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다저스 상대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5경기 연속 출루

‘바람의 손자’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돌풍은 그칠 줄 모른다.

이정후는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로 활약을 했다.

데뷔전인 지난 달 29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첫 안타 포문을 열었던 이정후는 5경기 연속 출루에 성공했다. 아울러 시즌 두 번째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작성했다.

시즌 타율은 0.286에서 0.316(19타수 6안타)으로 치솟았다.

이날 첫 안타는 1회 첫 타석에서 나왔다.

1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이정후는 다저스의 좌완 선발 제임스 팩스턴을 효과적으로 공략했다.

시속 151km의 몸쪽 강속구를 흘려보낸 뒤 2구째 152km 바깥쪽 높은 직구를 밀어 쳤다. 침착한 스윙

으로 정확하게 공을 때리는 기술이 일품이었다.

그러나 후속 타선의 침묵으로 득점엔 실패했다. 기본 좋게 경기를 시작한 이정후는 1회말 수비에서 살짝 아쉬운 플레이를 했다.

상대 팀 선두 타자 무키 베츠의 타구를 따라가다 공을 잡지 못하고 펜스에 충돌했고, 그 사이 베츠는 3루에 안착했다.

수비 실책으로 기록되진 않았으나 후속 타자 오타니 쇼헤이의 2루 땅볼 때 베츠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0-1로 뒤진 3회초 공격에선 범타로 물러났다. 선두 타자로 나서 낮은 볼을 건드렸다가 2루 땅볼로 아웃됐다.

그러나 이정후는 앞선 수비와 타석의 기억을 지우고 세 번째 타석에서 두 번째 안타를 쳤다.

0-3로 점수 차가 벌어진 5회초 무사 1루 공격 기회에서 팩스턴의 4구째 시속 150km 바깥쪽 높은 직구를 짚어 때려 중견수 앞 안타를 만들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정후의 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으나 후속 타자 오스틴 슬레이터의 병살타와 윌머 플로레스의 땅볼로 점수를 뽑지 못했다.

이정후는 1-6으로 끌려가던 7회초 공격에선 2루 땅볼로 잡혔다.

우완 불펜 조 켈리가 볼카운트 2볼-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시속 157km 빠른 직구에 당했다. 배트가 밀리면서 땅볼이 됐다.

마지막 타석도 범타로 돌아섰다. 2-8로 뒤진 9회초 마지막 공격 기회 무사 1루에서 다저스 우완 불펜 디켈슨 라메를 상대로 우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3구째 슬라이더를 공략했으나 공이 높게 뜨면서 워닝 트랙 앞에서 잡혔다.

샌프란시스코는 3-8로 제 2연패 했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는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의 성적을 올렸다. 시즌 타율은 0.269에서 0.267로 소폭 떨어졌다. /연합뉴스

## ‘LPGA 대세’ 코다 상승세 막아라

태극낭자, 라스베이거스서 시즌 첫 승 도전

2024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 후 7개 대회에서 우승을 신고하지 못한 한국여자골프 선수들이 이번 주에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한다.

시즌 초반이지만 현재 LPGA 투어의 대세는 넬리 코다(미국)다.

코다는 지난주 포드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벌써 3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위를 질주 중이다.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이번 시즌 1승을 포함해 매 대회 좋은 성적을 올리며 견제하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은 아직 강력한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선수들은 현지시간 3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파72·6804야드)에서 열리는 T-모바일 매치플레이에서 코르다의 상승세에 맞서 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 대회는 작년에는 벅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대회명을 바꾸고 총상금이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약 27억원)로 올랐다.

대회 이름뿐만 아니라 경기 방식도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플레이를 혼합한 포맷으로 크게 바뀌었다.

96명의 선수가 출전해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1, 2라운드(36홀)를 치른 뒤 공동 65위까지 3라운드에 진출한다.

18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상위 8명이 가려지면 대회 넷째 날부터는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8강, 4강, 결승전을 차례로 치른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4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지난주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 경쟁을 벌였던 김효주와 이미향을 비롯해 유해란, 신지은, 최혜진, 김세영, 전인지 등이 출전한다.

2022년 같은 코스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한 지은희도 출전해 탈라진 경기 방식에서도 LPGA 투어 한국군단의 ‘말안니’로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코다, 리디아 고 외에 셸린 부티에(프랑스), 브룩 헨더슨(캐나다), 로즈 장(미국)도 출전해 한국 선수들과 우승 경쟁을 벌인다. /연합뉴스

## 이상혁, 도쿄서 2연패 도전

내달 19일 2024 세이코 골든그랑프리 출전

‘스마일 점퍼’ 이상혁(27·용인시청)이 5월 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4 세이코 골든그랑프리 출전에 대해 2연패를 노린다.

세계육상연맹은 2일 “이상혁이 세계육상연맹 콘티넨털 투어 골든 시리즈 중 하나인 세이코 그랑프리 출전한다”고 밝혔다.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 대회 조직위원회도 이날 남자 높이뛰기 출전이 확정된 선수 명단에 이상혁의 이름을 올려냈다.

이상혁 외에도 브랜던 스타크, 조엘 바덴(이상 호주), 신노 도모히로, 아카마사 료이치, 하세가와 나오토(이상 일본) 등이 출전 의사를 밝혔다. 이상혁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2m29를 넘어 우

승했다.

2023년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에서 열렸지만, 올해에는 ‘2021년 도쿄 올림픽이 열렸던 장소’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치른다.

이상혁은 도쿄 올림픽에서 2m35를 넘어 4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도약했다.

이후 2022년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 2위(2m35), 2023년 다이아몬드 리그 파이널 우승(2m35)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았다.

현재 이상혁은 2024 파리 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홍콩에서 전지훈련 중이다. /연합뉴스